

검토하여야 한다.

- (2) 공사시행 전 사전측량 시에는 선단투입 가능수심, 간조와 만조시 준설 가능 수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선의 선정은 해저 토질, 토량, 수심, 투기조건, 해상기상, 공사기간 등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가장 적절한 선종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(4) 준설선단은 준설깊이, 폭 및 토질과 배송거리를 검토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(5) 토질조건, 준설방법 등에 따라 준설공사 후 사면은 규정된 적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, 파랑 및 조류가 심한 위치의 준설 사면은 규정된 적정 경사보다 완경사로 하여야 한다.
- (6) 준설작업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, 준설 중 오탐조사를 실시하여 준설해역의 환경기준을 지켜야 한다. 필요한 경우 준설구역 주변에 감시점을 설치하여 상시 수질감시를 실시하고 오탐방지막, 오일웬스 등 오탐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7) 준설공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안전관리 체계수립 및 중점관리항목 선정,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공사관련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마모가 심한 부위나 손상 시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9) 모든 준설토와 굴착토는 지정된 투기장으로 반출 투기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에 누출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